

무용 전공 대학생의 임파워먼트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그릿의 매개효과

* 김형남, ** 김규진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분석결과
	IV. 논의
	V. 결론
	참고문헌

* 세종대학교 무용과 교수
논문투고일 : 2022.07.28.

** 교신저자 : 단국대학교 무용과 강사
논문심사일 : 2022.08.09.

게재확정일 : 2022.09.04.

The effect of empowerment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dance on college life adapta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Kim, Hyoung-nam · Sejong university, Kim, Gyu-jin · Dankook university

_____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to 496 useless college students enrolled nationwide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mpowerment on college student activities and to verify the mediation effect of grit. The Naver Office Questionnaire Program was used from May 1st to May 31st, 2022 to collect materials. The collected data us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18.0 statistical program. As a result, it was shown that the meaning, influence, and competence of empowerment have a static (+) effect on academic adaptation and social adaptation of university student activity adaptation, and influence and competence are static on individual emotional adaptation. Appeared by having a target (+) effect. In the case of the following mediating effects, it was found that passion has no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eaning and academic adaptation, and social adapt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eaning and academic adaptation, social adaptation, influence and academic adaptation, social adaptation, and personal emotions. It was found that the tenacious partial mediation effect acts statically in the relationship of adaptation, competence performance, academic adaptation, social adaptation, and personal emotional adaptation. The development of inspiration and related educational programs and the progress of academic research related to inspiration and grit were derived as suggestions.

<key words> empowerment, adaptation to college life, grit, college dance, dance

<주요어> 임파워먼트, 대학생활적응, 그릿, 무용 대학, 무용

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각 대학에서는 기존 온라인강의에서 전면 오프라인강의로 전환하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약 3년간의 비대면 시스템은 교수자와 학생 간, 학생들 간의 소통 부족과 대학 시스템 활용 부족으로 학생들에게 대학생활에 대한 부적응을 부작용으로 나타내었다. 이에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의 질적 혁신·학생지원의 강화(대학저널, 2022), 멘토단 시스템(남도일보, 2022) 등을 활용하여 대학생활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해 작품을 창작하고 공연 활동으로 교우관계를 증진시키는 등 소통을 중시하는 무용 분야의 경우 3년간의 비대면 시스템은 대학생활부적응에 크게 노출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진(2021:1)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크게 하락하고 휴학생들이 늘어나는 등 학생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기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학생활적응은 대학 내에서 학업 관련 생활과 대인관계 등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며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을 갖는 것이라고 정의한다(홍다현, 김정섭, 2021). 이러한 대학생활적응은 Baker, R. W. & Siryk, B.(1984)에 의해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3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국내 연구자들에게도 꾸준히 연구(김혜영, 2021; 노혜연, 2022; 정이정, 2022)되고 있다. 이러한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구체적으로 최근 연구에서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서형은, 김혜진, 2022), 자아탄력성과 정서조절(최숙희, 2018), 셀프리더십(변은경, 박혜진, 박효진, 2022), 공감능력(홍서진, 박치수, 박은희, 유두한, 2022), 우울(박선영, 김종운, 2021) 등을 활용하여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해당 변수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개인의 정서와 관련하여 내적 심리상태를 높여준다는 점이다. 특히 무용전공 대학생들은 청소년기부터 콩쿠르와 입시 등과 같은 경쟁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내적 심리상태를 강화하여 자신을 긍정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중요한 요인으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서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변인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능력의 속성을 포함하고 자신의 강점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역량(신선화, 2019)을 말하는 임파워먼트를 활용한다면 통합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임파워먼트는 개인의 역량과 정서조절, 몰입을 중요시하고 심리적 조절 작용이 필요

한 직업군에서 자주 활용하여 긍정적 효과(김희숙, 강은주, 2016; 전재희, 염영희, 2014; 정진자, 왕선, 2010; 조윤희, 조성용, 홍계훈, 2017)를 나타내고 있는데, 무용수 양성의 기본 필요조건인 개인의 역량, 정서조절, 몰입을 활용하여 무대표현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무용 전공 대학생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연구에서도 활용해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파워먼트는 역량을 강화하는 행위로 정의되는데, 이는 개인 또는 가족, 지역사회와 같은 집단이 스스로 의사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을 구성하고 돕는 과정이며(김한별, 2015), 의미성, 자기결정력, 영향력, 역량성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임파워먼트는 상시적으로 환경이 변화하는 현시점의 무용 전공 대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적용되어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임파워먼트 관련 연구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꾸준히 연구되어 오고 있으나(신선화, 2019; 이상준, 남영옥, 2008; 유평수, 2008; 정진자, 한태영, 2017) 무용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관계성을 확인한 연구는 전무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무용은 자기 계발과 노력을 중시하는데 이때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그 과정에서 당장의 성과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목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개념을 말하는 그릇을 본 연구의 매개변수로 활용한다면 더욱 가치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릇은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개인 특성으로 어려움과 실패가 있더라도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정은주, 2019)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그릇은 무용전공생의 열정과 수행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고있고(이대원, 2022) 몰입(허민지, 김주연, 2022), 무용전념(성일경, 2022), 진로(김광범, 김상태, 2020) 등과 관계에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본 연구의 임파워먼트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연구에서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학교 만족도,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한 도구로 임파워먼트와 그릇을 함께 활용(정수정, 이강훈, 2021; 한수정, 박상희, 2022)하고 있고 각 변수 간 관계성이 증명되고 있다.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임파워먼트, 목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강화하기 위한 그릇은 무용 전공 대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할 요소로 인식되나 이들 간의 관계성을 증명한 연구는 미비하다. 또한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무용전공자를 대상으로 임파워먼트를 활용한 연구는 학술논문 13건, 학위논문 11건, 그릇을 활용한 연구는 학술논문

6건, 학위논문 5건이 검색되는데 타전공 분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임파워먼트와 그릿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재학 중인 무용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임파워먼트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무용 전공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고 긍정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 전공 대학생들의 임파워먼트는 대학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무용 전공 대학생들의 임파워먼트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그릿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전국의 대학 무용학과에 재학 중인 무용전공생을 대상으로 임파워먼트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다음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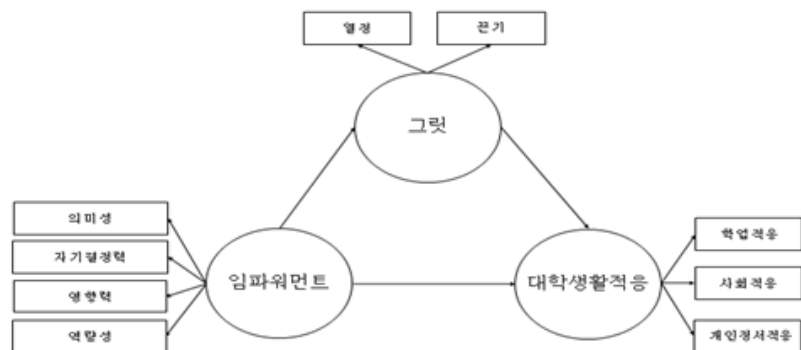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대학 무용학과에 재학 중인 무용전공자 49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87명, 여성 409명, 학년은 1학년 159명, 2학년 127명, 3학년 106명, 4학년 104명으로 나타났다. 전공은 한국무용 171명, 발레 156명, 현대무용 169명, 경력은 1~2년 39명, 3~5년 178명, 6~9년 176명, 10년 이상 103명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380명, 비수도권 116명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87	17.5
	여성	409	82.5
학년	1학년	159	32.1
	2학년	127	25.6
	3학년	106	21.4
	4학년	104	21.0
전공	한국무용	171	34.5
	발레	156	31.4
	현대무용	169	34.1
경력	1~2년	39	7.9
	3~5년	178	35.9
	6~9년	176	35.5
	10년 이상	103	20.8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380	76.6
	비수도권	116	23.4
합계		496	100

3. 측정도구

선행연구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 설정된 연구모형을 토대로 각 변인을 측정하였다. 구성요소로는 인구통계 5문항, 임파워먼트 16문항, 대학생활적응 21문항, 그릿 8문항 총 50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활용하여 5점 '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보통', 2점 '그렇지 않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구성요소는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의 구성요소 및 문항수

구성	하위변인	문항수
인구통계	성별, 학년, 전공, 경력, 지역	5
임파워먼트	의미성	4
	자기결정력	4
	영향력	4
	역량성	4
대학생활적응	학업적응	8
	사회적응	4
	개인정서적응	9
그릿	열정	4
	끈기	4
총계		50

1)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의 측정도구는 Thomas, K. W. & Velthouse, B. A.(1990)가 분류하고 김한별(2015), 신국희(2001), 안유상(2012), 장유리(2012), 최소빈(2019), 최지선(2019)이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전문가(대학교수 1인, 강사 1인)와 함께 수정·보완하였으며 하위요인으로는 의미성 4문항, 자기결정력 4문항, 영향력 4문항, 역량성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의 측정도구는 Baker, R. W. & Siryk, B.(1984)가 개발하고 김경진(2020), 방한승(2017)이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전문가(대학교수 1인, 강사 1인)와 함께 수정·보완하였으며 하위요인으로는 학업적응 8문항, 사회적응 4문항, 개인정서적응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그릿

그릿의 측정도구는 Duckworh, A. L. & Quinn, P. D.(2009)이 개발하고 이수란, 손영우(2013), 정은주(2019)가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전문가(대학교수 1인, 강사 1인)와 함께 수정·보완하였으며 하위요인으로는 열정 4문항, 끈기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3. 설문지의 구성요소별 대표문항

구성		대표 문항
임파워먼트	의미성	무용 수업은 나에게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
	자기결정력	나는 무용을 수행하는 데 있어 상당한 독립성과 재량을 가지고 있다.
	영향력	학과에서 나의 역할은 친구들에게 모범이 된다.
	역량성	나는 무용에 필요한 기술 및 지식을 숙달하고 있다.
대학생활적응	학업적응	나는 대학에서 들을 수 있는 강의의 질이나 양에 만족한다.
	사회적응	나는 대학에서의 인간관계에 만족하고 있다.
	개인정서적응	나는 대학 생활에서 닥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그릿	열정	나는 목표를 세우지만, 나중에 그것과는 다른 일을 하곤 한다.
	끈기	나는 근면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대상자는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무용 전공 대학생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비확률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목적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뒤, 온라인 네이버 설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4주간 총 496부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해당 변수들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해 주성분 직각회전 방식(베리맥스)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크론바흐 알파)을 실시하였다. 이후 변수계산을 거쳐 다중회귀분석과 Baron, R. M. & Kenny, D. A.(1986)가 제시한 3단계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5.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임파워먼트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통성이 낮은(0.5이하) 영향력(1번)을 제거하였다. 이후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재실시하여 공통성 .682~.867, 적재치 .494~.883, 신뢰도 계수 .840~.932로 나타나 기준치를 충족시켰다. 대학생활적응은 공통성이 낮은(0.5이하) 학업적응(1, 8번)을 제거하였으며 이후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재실시하여 공통성 .543~.771, 적재치 .533~.812, 신뢰도 계수 .873~.903으로 나타났다. 그릿은 제거된 요인이 없었으며 공통성 .622~.800, 적재치 .786~.892, 신뢰도 .844~.879로 나타났으며 다음 <표 4, 5, 6>과 같다.

표 4. 긍정심리자본 요인분석 및 신뢰도(KMO: 0.916)

요인	공통성	적재치	고유값	분산 %	누적 %	신뢰도
의미성1	.867	.882	8.283	55.220	55.220	.932
의미성2	.853	.883				
의미성3	.820	.808				
의미성4	.808	.861				
자기결정력1	.779	.494	2.023	13.485	68.705	.869
자기결정력2	.755	.696				
자기결정력3	.807	.725				
자기결정력4	.739	.600				
영향력2	.682	.620	.746	4.976	73.681	.840
영향력3	.805	.808				
영향력4	.785	.756				
역량성1	.786	.787	.668	4.453	78.134	.875
역량성2	.734	.674				
역량성3	.792	.803				
역량성4	.707	.701				

표 5. 대학생활적응 요인분석 및 신뢰도(KMO: 0.937)

요인	공통성	적재치	고유값	분산 %	누적 %	신뢰도
학업적응2	.684	.743	8.903	46.857	46.857	.884
학업적응3	.709	.797				
학업적응4	.674	.671				
학업적응5	.656	.720				
학업적응6	.651	.718				
학업적응7	.589	.620				
사회적응1	.633	.736	2.059	10.837	57.694	.873
사회적응2	.771	.812				
사회적응3	.719	.801				
사회적응4	.671	.684				
개인정서적응1	.621	.570	1.365	7.185	68.840	.903
개인정서적응2	.641	.762				
개인정서적응3	.713	.761				
개인정서적응4	.702	.800				
개인정서적응5	.543	.533				
개인정서적응6	.630	.628				
개인정서적응7	.687	.771				
개인정서적응8	.589	.634				
개인정서적응9	.582	.737				

표 6. 그릿 요인분석 및 신뢰도(KMO:0.825)

요인	공동성	적재치	고유값	분산 %	누적 %	신뢰도
열정1	.665	.815	3.328	41.601	41.601	.879
열정2	.800	.892				
열정3	.768	.873				
열정4	.711	.834				
끈기1	.622	.786	2.349	29.366	70.966	.844
끈기2	.689	.825				
끈기3	.717	.837				
끈기4	.704	.839				

III / 분석결과

1. 임파워먼트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무용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임파워먼트의 하위변인인 의미성, 자기결정력, 영향력, 역량성이 대학생활적응의 하위변인인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단계 선택(stepwise)을 선택하였다. 분석결과, $F=113.366(p<.001)$ 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다중공선성 여부를 알 수 있는 터빈왓슨은 기준치인 2.0 값에 가깝게 나타나(1.967) 변수 간 독립성이 확보되었다. 임파워먼트의 하위변인 중 의미성($p=.000$), 영향력($p=.000$), 역량성($p=.000$)이 학업적응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결정력은 기각되었다.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다중회귀분석 결과(임파워먼트→학업적응)

변수	B	S.E	β	t	p	공차	VIF
상수	.389	.163	-	2.388*	.017	-	-
의미성	.321	.050	.302	6.477***	.000	.486	2.057
자기결정력	.118	.063	.108	1.857	.064	.315	3.174
영향력	.187	.050	.195	3.733***	.000	.390	2.564
역량성	.220	.054	.219	4.096***	.000	.372	2.688

* $p<.05$, ** $p<.01$, *** $p<.001$ / F : 113.366*** / 터빈왓슨 : 1.967

다음은 임파워먼트의 하위변인인 의미성, 자기결정력, 영향력, 역량성이 대학생 활적응의 하위변인인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단계 선택(stepwise)을 선택하였다. 분석결과, $F=120.664(p<.001)$ 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다중공선성 여부를 알 수 있는 더빈왓슨은 기준치인 2.0 값에 가깝게 나타나(1.862) 변수 간 독립성이 확보되었다. 임파워먼트의 하위변인 중 의미성($p=.000$), 영향력($p=.000$), 역량성($p=.012$)이 사회적응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자기결정력은 기각되었다.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다중회귀분석 결과(임파워먼트→사회적응)

변수	B	S.E	β	t	p	공차	VIF
상수	.641	.158	-	4.065***	.000	-	-
의미성	.360	.048	.345	7.515***	.000	.486	2.057
자기결정력	.114	.061	.106	1.863	.063	.315	3.174
영향력	.236	.048	.249	4.858***	.000	.390	2.564
역량성	.131	.052	.133	2.528*	.012	.372	2.688

* $P<.05$, ** $P<.01$, *** $P<.001$ / F : 120.664*** / 더빈왓슨 : 1.862

다음은 임파워먼트의 하위변인인 의미성, 자기결정력, 영향력, 역량성이 대학생 활적응의 하위변인인 개인정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단계 선택(stepwise)을 선택하였다. 분석결과, $F=56.263(p<.001)$ 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다중공선성 여부를 알 수 있는 더빈왓슨은 기준치인 2.0 값에 가깝게 나타나(1.906) 변수 간 독립성이 확보되었다. 임파워먼트의 하위변인 중 영향력($p=.001$), 역량성($p=.000$)이 개인정서적응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의미성과 자기결정력은 기각되었다.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다중회귀분석 결과(임파워먼트→개인정서적응)

변수	B	S.E	β	t	p	공차	VIF
상수	1.060	.201	-	5.278***	.000	-	-
의미성	.008	.061	.007	.132	.895	.486	2.057
자기결정력	.007	.078	.006	.088	.930	.315	3.174
영향력	.211	.062	.205	3.420**	.001	.390	2.564
역량성	.412	.066	.382	6.234***	.000	.372	2.688

* $P<.05$, ** $P<.01$, *** $P<.001$ / F : 56.263*** / 더빈왓슨 : 1.906

2. 임파워먼트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무용 전공 대학생의 임파워먼트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임파워먼트의 하위변인 중 매개변인인 그릿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들을 대상으로 Baron, R. M. & Kenny, D. A.(1986)가 제시한 3단계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10, 11>과 같다.

먼저 임파워먼트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그릿의 하위변인인 열정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임파워먼트(의미성)의 경우 1단계에서 매개변인인 그릿(열정)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고($p=.027$), 2단계에서 임파워먼트(의미성)가 대학생활적응(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다($p=.000$). 3단계에서 임파워먼트(의미성)와 그릿(열정)을 동시에 투입해 종속변인인 대학생활적응(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독립변수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p=.000$) 매개변인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임파워먼트(의미성)와 대학생활적응(사회적응)의 관계에서 그릿(열정)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p=.027$)와 2단계($p=.000$)까지 유의하게 나타났고 3단계 독립변인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p=.000$) 매개변인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그릿(열정)의 매개효과

	검정단계	β	t	p	R^2	매개효과
의미성 열정 학업적응	단계1	-.141	-2.215*	.027	.030	기각
	단계2	.579	15.784***	.000	.335	
	단계3(독립)	.584	15.698***	.000	.336	
	단계3(매개)	.029	.767	.444		
의미성 열정 학업적응	단계1	-.141	-2.215*	.027	.030	기각
	단계2	.607	16.969***	.000	.368	
	단계3(독립)	.603	16.628***	.000	.369	
	단계3(매개)	-.026	-.729	.466		

* $P<.05$, ** $P<.01$, *** $P<.001$

임파워먼트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그릿의 하위변인인 끈기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임파워먼트(의미성)의 경우 1단계에서 매개변인인 그릿(끈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고($p=.000$) 2단계에서 임파워먼트(의미성)가 대학생활적응(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다($p=.000$). 3단계에서 임파워먼트(의미성)와 그릿(끈기)을 동시에 투입해 종속변인인 대학생활적응(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독립변인(의미성)

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하여($\beta=.579 \rightarrow .370$) 임파워먼트(의미성)와 대학생활적응(학업적응)의 관계에서 그릿(끈기)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파워먼트(의미성)와 대학생활적응(사회적응)의 관계에서 그릿(끈기)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607 \rightarrow .391$).

다음 임파워먼트(영향력)와 대학생활적응(학업적응)의 관계에서 그릿(끈기)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578 \rightarrow .356$), 임파워먼트(영향력)와 대학생활적응(사회적응)의 관계에서 그릿(끈기)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598 \rightarrow .351$), 임파워먼트(영향력)와 대학생활적응(개인정서적응)의 관계에서 그릿(끈기)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99 \rightarrow .335$).

다음 임파워먼트(역량성)와 대학생활적응(학업적응)의 관계에서 그릿(끈기)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584 \rightarrow .372$), 임파워먼트(역량성)와 대학생활적응(사회적응)의 관계에서 그릿(끈기)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559 \rightarrow .320$), 임파워먼트(역량성)와 대학생활적응(개인정서적응)의 관계에서 그릿(끈기)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543 \rightarrow .420$).

표 10. 그릿(열정)의 매개효과

	검정단계	β	t	p	R ²	매개효과
의미성 끈기 학업적응	단계1	.240	4.835***	.000	.411	부분매개
	단계2	.579	15.784***	.000	.335	
	단계3(독립)	.370	9.509***	.000	.455	
	단계3(매개)	.404	10.407***	.000		
의미성 끈기 사회적응	단계1	.240	4.835***	.000	.368	부분매개
	단계2	.607	16.969***	.000	.494	
	단계3(독립)	.391	10.450***	.000	.411	
	단계3(매개)	.418	11.169***	.000		
영향력 끈기 학업적응	단계1	.263	4.743***	.000	.442	부분매개
	단계2	.578	15.750***	.000	.411	
	단계3(독립)	.356	8.737***	.000	.347	
	단계3(매개)	.396	9.728***	.000		
영향력 끈기 사회적응	단계1	.263	4.743***	.000	.411	부분매개
	단계2	.598	16.186***	.000	.249	
	단계3(독립)	.351	8.847***	.000	.307	
	단계3(매개)	.422	10.637***	.000		
영향력 끈기 개인정서적응	단계1	.263	4.743***	.000	.341	부분매개
	단계2	.499	12.813***	.000	.454	
	단계3(독립)	.336	7.407***	.000	.411	
	단계3(매개)	.291	6.426***	.000		

역량성 끈기 학업적응	단계1	.140	2.464*	.014	.458	부분매개
	단계2	.584	15.986***	.000	.411	
	단계3(독립)	.372	9.474***	.000	.295	
	단계3(매개)	.398	10.123***	.000		
역량성 끈기 사회적응	단계1	.140	2.464*	.014	.030	부분매개
	단계2	.559	14.994***	.000	.368	
	단계3(독립)	.320	8.171***	.000	.369	
	단계3(매개)	.449	11.473***	.000		
역량성 끈기 개인정서적응	단계1	.140	2.464*	.014	.030	부분매개
	단계2	.543	14.388***	.000	.368	
	단계3(독립)	.420	9.341***	.000	.369	
	단계3(매개)	.266	6.189***	.000		

*P<.05, **P<.01, ***P<.001

IV 논의

본 연구는 전국의 대학 무용학과에 재학 중인 무용전공자를 대상으로 임파워먼트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임파워먼트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임파워먼트의 하위변인인 의미성, 자기결정력, 영향력, 역량성이 대학생활적응의 하위변인인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의미성, 영향력, 역량성이 학업적응에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임파워먼트 하위요인들의 수준이 높을수록 몰입도와 만족도가 높아져 학생들의 학업 적응력을 향상시켜 효과성을 나타내는데 이는 학교와 회사조직 등에 동일시 적용된다고 발표한 Conger, J. A. & Kanungo, R. N.(1987)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더불어 임파워먼트는 대학생 뿐만 아닌 여러 유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임파워먼트의 의미성, 영향력, 역량성, 자기결정력은 고등학생의 수업적응에도 영향을 미친 사례(유평수, 2008)가 있고 장애대학생의 학업적응에도 정적영향을 미친 바 있다(김정은, 2013). 또한 임파워먼트가 높으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학교수업에서 학습효과가 높

아져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계원, 2021)가 나타나고 있기에 임파워먼트는 학업적응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에 무용 전공 대학생들에게 무용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고 정서를 함양하는 가치를 재인식하는 등 의미와 자신감을 임파워먼트를 통해 부여한다면 대학에서 학업을 지속하고 적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의미성, 영향력, 역량성이 사회적응에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임파워먼트가 사회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한 김미미(202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외에도 임파워먼트와 사회적응의 관계를 증명한 연구는 대학생 외에도 다문화여성의 사회적응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곽미정, 2016), 빈곤아동의 사회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이희영, 2014), 청소년(유난영, 2008) 등이 존재한다. Zimmerman, M. A.(1990)은 임파워먼트를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보고 개인차원에서는 자신의 삶에 통제감을 갖고 사회의 생활영역에 민주적인 참여를 하는 상태라고 했는데 이는 학생들 간의 인간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곽금연(2009)의 연구에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 간 교우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학교라는 집단의 작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파워먼트는 관련 선행된 연구보다는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제 효과성을 확인한 연구들을 주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무용 전공 대학생들에게도 임파워먼트를 적용하여 통계적인 분석이 일정 진행된 뒤, 대학 또는 연구소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영향력, 역량성이 개인정서적응에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임파워먼트를 가지고 있으면 충동적이고 무절제한 생활을 선택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기에 대학 생활의 정서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발표한 신선화(201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더불어 임파워먼트의 의미성, 영향력, 역량은 조기구성원들의 정서를 조절해 직무만족에 정적영향을 미친다고 발표된 사례들(배정섭, 원도연, 조광민, 2014; 정지명, 이광용, 2007)로 본 연구를 뒷받침 할 수 있다. 다만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의 의미성은 채택되지 않았는데, 이는 팬데믹으로 인해 교육시스템의 잦은 변화와 자료수집의 시기, 연구대상이 상이함에 따라 채택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Querimit, D. S. & Conner, L. C.(2003)의 연구에서는 자살위험에 처한 학생들에게 임파워먼트 모델을 적용하여 심리치료를 실시 한 결과 비행, 우울, 자해 정도가 감소하여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학교생활 내에서의 적응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고 하소정(2009), 김영란(2006)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정서를 조절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 전공 대학생의 경우 체격 관리로 인한 다이어트, 상상력을 포함하는 창작활동 등을 기반으로 학업생활을 지속하기에 정서 관리는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임파워먼트가 개인정서적응에 정적으로 작용했기에 무용 전공 대학생들에게 임파워먼트를 적극 활용해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되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확진 시 격리하게 되는 사회제도는 진행되고 있고 무용 전공 학생들의 불규칙한 대학 생활이 지속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개인의 목적의식, 단체에 대한 몰입, 활력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다고 믿음(변재우, 고재운, 2012)을 발달시키는 임파워먼트를 활용한 학술연구 기반의 실제 현장 적용은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무용 전공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현대무용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임파워먼트의 영향력을 확인한 김규진(2022)의 연구에서도 임파워먼트는 무용능력에 대한 자신감, 문제해결능력,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높여주며 특히 무용수업에 대한 적극적 자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대학에서 시행하는 무용수업, 즉 전공수업은 대학생활적응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또한 행동 지향적 측면을 강조하는 임파워먼트의 활용은 실기의 비중이 큰 무용전공생들의 긍정적 정서 함양과 내적 역량 강화를 통해 개인의 성장을 위한 기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무용학과를 포함한 각 교육기관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임파워먼트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임파워먼트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그릿의 하위변인인 열정, 끈기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의미성과 학업적응의 관계, 의미성과 사회적응의 관계에서 열정은 2단계까지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쳤으나 3단계에서 기각되어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미성과 학업적응, 사회적응의 관계, 영향력과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의 관계, 역량성과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의 관계에서 끈기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그릿의 끈기가 정적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한 홍다현, 김정섭(202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그릿은 대학생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이근모, 윤정희, 김남규, 2020), 고등학생(신여울, 박다운, 구민주, 2019), 아동(채혜경, 2021)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연구 및 활용되며 중요성이 인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임파워먼트와 그릿의 경우 학생 스스로의 심리적 작용을 중요시하는 하위 속성을 지니고 있기에 두 변인을 함께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에 본 연

구에서도 열정은 2단계까지만 채택되고 끈기는 대다수가 부분매개효과로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임파워먼트와 그릿이 대학생활적응에 개별적으로 적용했을 시, 대부분 채택된 것으로 비추어본다면 무용 전공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중요한 요인임은 확실하다. 결국 두 변인 모두 연구되어온 사례가 부족하고 개발된 시기가 짧다는 것을 인지하여 중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개별 특성을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무용 전공 대학생들은 물론 일반 학생들에게도 꼭 필요한 도구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더불어 앤절라 다크워스의 저서 그릿(이미정, 2016)에서는 타고난 재능보다는 열정과 끈기를 포함하는 그릿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학업 측면의 성공사례들을 보여주며 그릿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예술 분야의 경우 신체조건, 창의성 등과 같은 타고난 환경과 재능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관은 학생 스스로 개인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용인으로서의 성장은 물론 학교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열정과 끈기를 말하는 그릿을 적용하여 실제적인 교육이 진행된다면 4년간의 대학 생활을 긍정적으로 지속하게 되어 무용 전공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본 연구는 무용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파워먼트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전국의 무용학과에 재학 중인 무용전공생 49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임파워먼트의 의미성, 영향력, 역량성이 대학생활적응의 학업적응과 사회적응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향력, 역량성이 개인정서적응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매개효과의 경우 의미성과 학업적응, 사회적응의 관계에서 열정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미성과 학업적응, 사회적응의 관계, 영향력과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의 관계, 역량성과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의 관계에서 끈기는 부분매개효과가 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와 논의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임파워먼트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다. 임파워먼트는 자신의 내부의 힘을 찾고 자기 비난을 줄이는 등 스스로가 무력한 객체가 아닌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주체가 되도록

록 함으로써 내부의 힘을 강화하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허정철, 2020). 무용의 특성상 체격 관리로 인한 스트레스, 콩쿠르 수상과 공연 참여 기회 습득에 대한 심리적 압박 등의 이유로 잦은 경쟁상태에 놓이게 되며,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 시에 자존감이 하락하고 자기 비난을 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때 임파워먼트를 적용한 교육프로그램을 무용 전공 대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내부의 힘을 강화하고 무용의 의미를 스스로 찾게 하여 대학생 활적응력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보람(2020:2)에 의하면 “무용학과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3분의 1이 휴학을 선택하였고 학기를 잠시 멈추고 쉬고 싶은 욕구, 춤이 아닌 다른 길로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욕구는 현재 당연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고 김규진(2022)에 의하면 대학생활 부작용의 해소방안으로 임파워먼트의 향상이 도움을 줄 수 있기에 무용을 교육받는 대학이라는 조직문화에서 적극 장려되어야 할 요소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임파워먼트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각 무용협회 또는 대학 내 개설되어있는 무용연구소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무용 전공 대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임파워먼트와 그릿 관련 학술연구 확대 진행”이다. 임파워먼트와 그릿의 경우 타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무용분야에서 임파워먼트와 그릿 관련 학술연구는 미비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용 분야에서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은 무용전공자들에게 임파워먼트와 그릿 관련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 정수정, 이강훈(2021)의 연구에 의하면 임파워먼트와 그릿은 내면의 힘을 기르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내면의 힘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며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효과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결국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본 연구의 결과를 포함한다면 임파워먼트와 그릿은 무용 전공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일정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무용학회 차원에서 연구자들에게 적극 독려하여 관련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임파워먼트와 그릿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각 교육기관에서 활용성을 인지하여 무용 전공 대학생들에게 교육한다면 인식 개선에 일정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무용 분야의 임파워먼트와 그릿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기에는 한계성이 존재했으며 연구대상이 대학생들로 설정되어 있어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무용 전공

중·고등학생과 대학원생 등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통계적인 추가분석이 필요하고 팬데믹 학번들만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방법인 인터뷰를 활용하여 대학생활적응 관련 연구를 심층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물론 무용 전공 대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방안으로 학술적인 측면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무용은 교수자와 학생 간의 소통, 학생 간의 소통을 통한 정서 교류를 중시하며 기술습득과 체험을 통해 학업에 몰입하고 성장한다. 이를 위해 학과 내의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학술연구를 진행하여 효과성이 나타나는 변수들을 대입하는 환경으로 차츰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팬데믹으로 인해 교육환경이 수시로 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방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이를 통해 무용 전공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고 관심이 증대되길 기대해본다.

곽금연(2009), “청소년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인식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곽미정(2016), “다문화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이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행정학** 30(3), 355-375.

김경진(2020), “대학 방송댄스 전공자들의 회복탄력성과탈진이 대학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김광범, 김상태(2020), “무용전공 대학생의 그릿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무용학회,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8(1), 21-38.

김규진(2021), “현대무용전공 대학생들의 학업생활과 진로설정을 위한 개선방안 탐색: FGI와 중요도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2(3), 145-161.

_____(2022), “현대무용전공 대학생의 임파워먼트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개인 혁신행동의 조절효과”, 대한무용학회,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9(3), 35-50.

김미미(2022), “정신장애인의 낙인지각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김미정(2016), **GRIT(그릿)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 비즈니스북스.

김보람(2020), “그들은 과연 중도탈락자 인가?: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에 관한 이야기”, 대한무용학회,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8(4), 1-25.

김영란(2006), “임파워먼트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천경기지역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김정은(2013), “장애대학생의 학업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와 임파워먼트 요인 분석”, 한국학습장애학회, **학습장애연구** 10(3), 159-179.

김한별(2015), “무용지도자의 리더십 유형이 무용전공 학생들의 임파워먼트 및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김혜영(2021), “대학생의 기본심리욕구, 진로적응성, 진로구성, 진로몰입, 대학생활적응 및 부모진로지지의 구조적 관계: 진로적응모형을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대학원.

김희숙, 강은주(2016), “피부미용 서비스 종사자의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자인문화학회,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2(1), 89-99.

노혜연(2022),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신체활동과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선영, 김종운(2021),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대학생활적응, 우울 및 자살생각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연구** 29(2), 119-148.

방한승(2017), “관광관련 전공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취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대학원.

- 변은경, 박혜진, 박효진 (2022), “간호대학생의 수면의 질,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셀프리더십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0)**, 155-165.
- 변재우, 고재윤(2012), “특1급호텔 식음료 종사자의 LMX(리더·멤버 교환관계)질이 임파워먼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호텔경영학연구 21(6)**, 39-60.
- 배정섭, 원도연, 조광민 (2014), “대학야구 지도자들의 임파워링 리더십에 따른 선수들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정서적 조직몰입 및 조직시민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학회지 53(6)**, 135-150.
- 서형은, 김혜진(2022),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학습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간의 관계: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7)**, 41-51.
- 성일경(2022), “직업발레무용수의 기본심리욕구와 그릿(GRIT), 무용전념, 무용몰입의 구조적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신국희(2001), “임파워먼트와 조직분위기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대학원.
- 신선화(2019), “부모-자녀 관계와 대학 적응 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9(1)**, 421-421.
- 신여울, 박다운, 구민주 (2019), “고등학생의 그릿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에서 불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발달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2(3)**, 21-36.
- 안유상(2012), “직업무용단의 내부마케팅이 임파워먼트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유평수(2008), “고등학생의 임파워먼트 수준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15(1)**, 171-196.
- 이계원(2021),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 관계에서 개인임파워먼트 매개효과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칼빈대학교 대학원.
- 이근모, 윤정희, 김남규 (2020), “고등학교 여자농구선수의 그릿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을 매개변인으로”,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교사교육연구 59(4)**, 587-600.
- 이대원(2022), “무용학과 대학생의 열정과 수행간의 관계에서 정서와 그릿(Grit)의 매개효과”, 대한무용학회, **대한무용학회논문집 80(2)**, 137-159.
- 이상준, 남영옥(2008),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임파워먼트가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미래청소년학회지 5(2)**, 63-82.
- 이수란, 손영우(2013), “무엇이 뛰어난 학업성취를 예측하는가?”, 한국심리학회 산하학교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3)**, 349-366.
- 이희영(2014), “빈곤아동의 사회자본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임파워먼트 매개효과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영신학대학교.
- 장유리(2012), “직업발레단의 조직문화 및 임파워먼트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전재희, 염영희(2014), “종합병원 간호사의 직무배태성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와 감성지능의 역할”, 한국간호행정학회, **간호행정학회지 20(3)**, 302-312.

정수정, 이강훈(2021), “방과후 아동돌봄을 경험한 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원장의 코칭리더십, 동료교사의 사회적지지, 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와 그릇을 중심으로”, 한국유아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 41(3)**, 387-418.

정은주(2019), “그릿(Grit)이 비서의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 상사지원의 조절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이정(2022), “중국 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 및 동아리활동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대학원.

정지명, 이광용(2007), “스포츠 센터 조직의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유효성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한국스포츠산업 경영학회지 12(2)**, 157-169.

정진자, 왕선(2010), “한국과 중국의 감각장애학교 교사의 임파워먼트 특성 비교”,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시각장애연구 26(4)**, 205-225.

정진아, 한태영(2017), “전환학습을 통한 적응학습에서 임파워먼트와 네트워킹의 영향 및 팀 요인의 조절효과”,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인적자원관리연구 24(2)**, 27-48.

조윤희, 조성용, 홍계훈(2017), “진성리더십과 팀 임파워먼트가 팀 몰입과 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30(4)**, 657-688.

채혜경(2021), “어머니의 성취압력, 양육행동, 아동의 그릿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인문사회21, **인문사회21 12(6)**, 2937-2948.

최소빈(2002), “직업무용단의 조직분위기가 임파워먼트 및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최숙희(2018),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대인관계능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11)**, 148-156.

최지선(2019), “공연예술단의 사회적 자본과 임파워먼트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 조직몰입, 집단효능감,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하소정(2009), “저소득 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수준과 위험-보호요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하정철(2020), “임파워먼트 향상 프로그램이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27(1)**, 1-24.

한수정, 박상희(2022), “관광전공 대학생의 그릿, 임파워먼트, 현장실습 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관광경영학회, **관광연구 37(4)**, 25-43.

허민지, 김주연(2022), “대학 무용전공자의 성장마인드셋이 그릿과 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고칭능력개발원, **코칭능력개발지 24(3)**, 45-52.

홍다현, 김정섭(2021), “대학생의 마인드셋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문화연구 27(1)**, 153-171.

홍서진, 박치수, 박은희, 유두한(2022), “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인문사회21 13(1)**, 1371-1382.

Baker, R. W. & Siryk, B.(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189.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Conger, J. A. & Kanungo, R. N.(1987), "Toward a Behavioral Theory of Charismatic Leadership in Organizationa Setting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2, 637–647.
- Duckworth, A. L. & Quinn, P. D.(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2), 166–174.
- Thomas, K. W. & Velthouse, B. A.(1990), "Cognitive Element of Empower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5(4), 666–681.
- Zimmerman, M. A.(1990), "Taking aim on empowerment research: On the distinction between individual and psychological conception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gy* 18(1), 169–177.
- Querimit, D. S. & Conner, L. C.(2003), "Empowerment psychotherapy with adolescent females of col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9(1), 1215–1224.

한국교육개발원(2021), "교육통계서비스,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 https://kess.kedi.re.kr/mobile/stats/school?menuCd=0102&cd=5541&survSeq=2021&itemCode=01&menuId=m_010205&uppCd1=010205&uppCd2=010205&flag=A

한국대학신문(2022), "코로나 장기화로 외국인 유학생 뚝...교육의 질과 학생 만족도 제고 방향으로 정책 이뤄져야", 2022.04.18.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26863>